

학회참가기

2019 IAFP 해외 학술대회 참가기

박 회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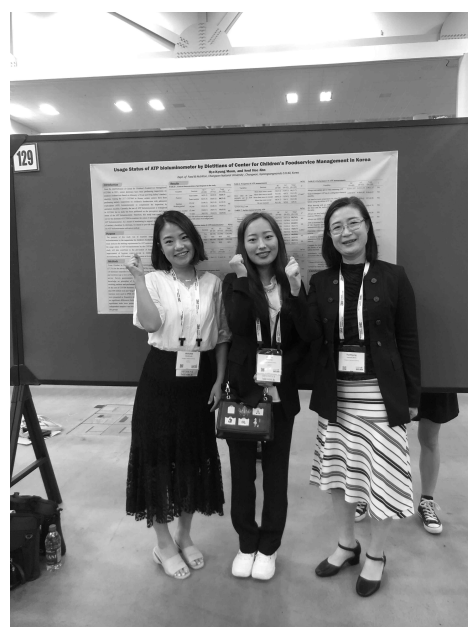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ood Protection(IAFP)에 참가하기 전 나에게 ‘해외여행’은 Bucket list 중 하나였다. 대학교 입학 후 ‘해외’에 가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대학교 3학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 바로 ‘해외여행’이었다.

2019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지도교수님께서 실험실 학생들에게 미국 Louisville에서 열리는 2019 IAFP에 참가하자는 제안을 하셨다. 교수님의 제안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아직 학부생인데 해외학회를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내가 가게 될 학회에 대한 아무런 정보와 지식도 없고, 특히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학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주위 분들이 한 번 가보라는 권유도 했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흥미가 있어 용기를 가지고 교수님께 참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학회에 내가 참석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것 같아 두려움을 무릅쓰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유일한 학부생인 내가 선뜻 학술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학부생 혼자서 해외학회를 갈려고 생각했냐는 말씀을 하시며 놀라워하셨다.

2019년 7월 21~24일간 진행되는 IAFP에 참석하기 위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미국 Louisville에 도착했다. IAFP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식품안전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교환하고, 최근 연구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소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학회이다. 규모가 큰 학회인 만큼 한 장소에서 강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강연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일 유용했던 것은 휴대폰 앱을 통해 듣고 싶은 강연자의 강연 내용 요약본을 미리 볼 수 있어 수월하게 강연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다. 나는 IAFP를 처음 참가하는 만큼 IAFP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어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함께 강연 장소를 이동하였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강연은 FDA에서 시행하는 FSMA에 관한 내용이었다. FSMA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HACCP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지만

FSMA가 HACCP보다 훨씬 넓은 내용과 간소한 기준을 가진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HACCP에서는 위해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요관리점(CCP)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면 FSMA는 중요관리점(CCP)을 포함하여 allergy, 위생 시설, 생산과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도이다. 강연 시작 전날 교수님께서 FSMA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읽어보고 미리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 가니 강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100%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준비된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강연자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약 IAFP에 참가하게 되어 강연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IAFP 장소 내 식품 관련 회사들이 제품을 전시한 장소와 구인 광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 관련 회사에 속한 직원들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지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 미생물 관련 회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수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식품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내놓는 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국



선배의 포스터 앞에서 선배, 교수님과 함께

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IAFP를 통해 알게 되었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AFP를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포스터 발표와 IAFP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모임이다. 포스터 전시 및 발표는 21~22일로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학회 규모가 크다 보니 하루에 전시되는 포스터 수도 많아 다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의 제약이 너무 커서 다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IAFP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스터 발표자의 시간을 정해 반드시 그 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포스터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내가 부족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한 점이다. 나와 함께 간 선배는 21일 오전 포스터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포스터를 붙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나에게 친절히 해주었다. 선배의 포스터 내용은 ATP 기계의 사용에 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인식도 조사였다. 선배는 인식도 문항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퀴즈형식으로 물었고 나는 그 문항들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문항들은 쉽게 맞추었는데 1문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선배가 틀렸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내가 틀린 문항은 ‘ATP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계이다’였는데 ATP 기계는 살아있지 않은 먼지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해 주어 ATP에 관한 내용을 전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배는 내게 논문 결과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 외에도 교수님께서 IAFP와 같은 큰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다양한 포스터를 통해 어떤 소재로 논문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식품 안전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선배를 포함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작한 포스터 앞에서 연구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답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점은 내게 신선한 충격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다. IAFP 포스터 발표는 평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표하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스스로 해외 학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 포스터 발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가지게 해주었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IAFP에 참여하여 선배처럼 내가 만든 포스터를 여기에다 꼭 붙이겠다는 나름의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나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IAFP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모임은 21일 IAFP의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는 시간인 5시 30분~6시 30분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10~20분간 모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준 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석사나 박사 과정 중인 분들이 많았고 나 혼자 유일한 학부생이었다. 그 사실이 조금 민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



2019 IAFP에 참여한 한국인분들과 함께

출처: Korea Association for Food Protection Meeting

남들은 방학 기간에 다른 일을 할 때 나는 학부생으로 이곳 IAFP에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하니 나 스스로 대단하다는 위안이 아닌 위안을 하였다. 또한 학회가 열리는 동안 같은 나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자기소개 후 다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나는 선배와 함께 타 대학의 식사과정에 있는 3명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 논문의 소재를 찾고자 IAFP에 참가했다는 얘기, 대학원 얘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평소 낮을 가리는 내가 그들과 더 많은 대화와 질문을 하지 못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대학원 진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님, 선배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마트인 Target과 Walmart를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엔 마트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한국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식재료와 가공식품에 많은 차이가 나 현지 마트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미국 현지 마트에서는 소비자가 주로 요리를 해서 먹는 식재료를 구매하기보다는 요리가 다 된 완제품이나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류를 주로 구매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미국 현지 마트에 방문하게 되면서 제일 신기했던 점은 과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사과와 동그란 모양을 지니고 있다면 미국의 사과는 길쭉한 피망과 유사한 모양이었고, 무엇보다 제일 신기했던 것은 위아래로 눌린 형태인 백도 복숭아였다. 이처럼 현지 마트 방문을 통해서 각 나라의 식습관과 식재료인 과일 또한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해외에 가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마트나 시장을 방문하여 식습관과 식재료 구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 다른 분들께서도 해외에 가신다고 하면 꼭 현지 마트 방문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2019 IAFP에 참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



백도 복숭아

람들이 연령과 성별과 관계없이 본인들의 연구를 공유하고자 IAFP에 참가하시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부

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IAFP에서 진행하는 강연을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하지만 IAFP를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IAFP 해외 학술대회 참가는 내가 변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안겨 주었다. 학회에 참가하기 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IAFP를 참가한 후로 그 고민은 사라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펼쳐 IAFP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번 2019 IAFP는 내가 한 걸음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부족한 나의 실력을 보완하고 열심히 준비해 다음 IAFP 때는 내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참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좋은 기회를 주신 문혜경 교수님과 부족한 나를 이끌고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안설희 선배님 그리고 ‘식품산업과 영양’지에 해외 학술대회 참가기 작성 기회를 주신 김미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